다정하고픈 그림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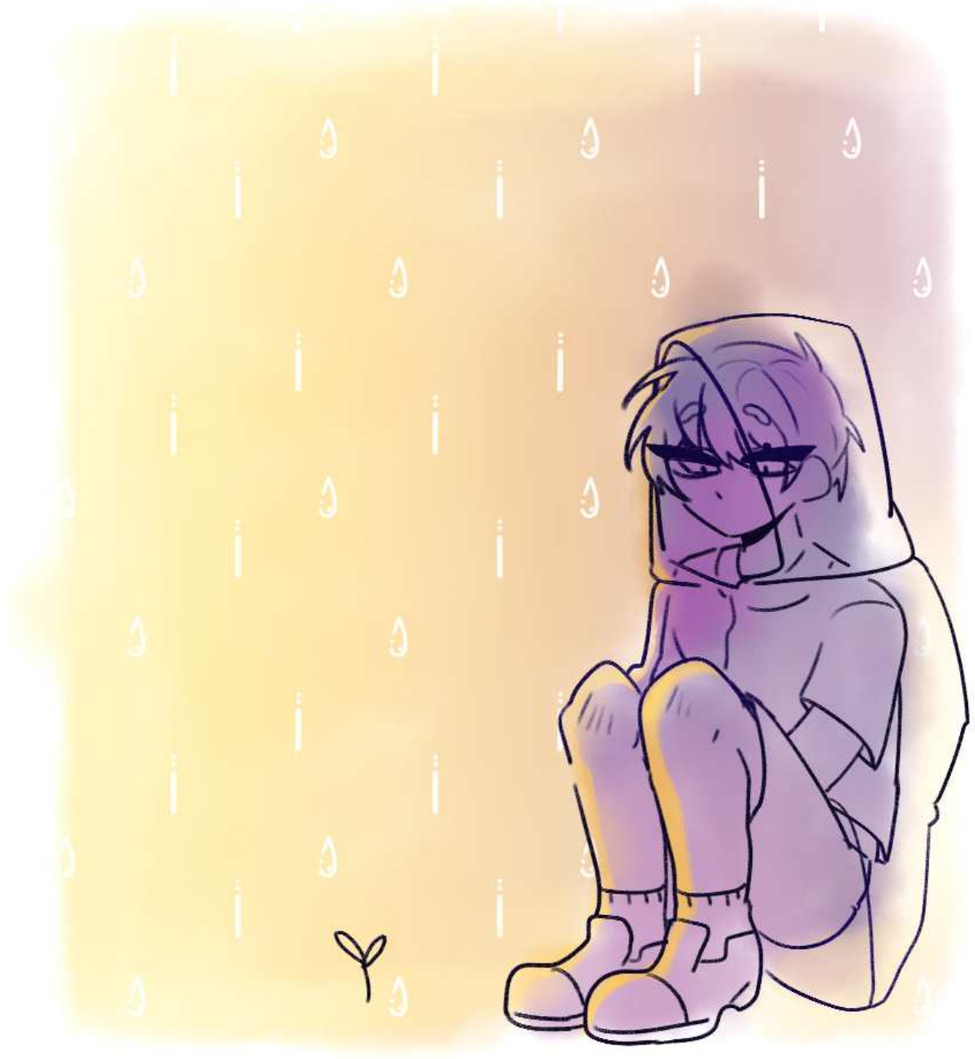
다정 그리고 씀

2018~2020년 제천간디학교에서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뒤에서 사람들과 직접 얘기 안해도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요."
-타샤 튜더

프롤로그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림이란 저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었죠. 반면에 감정은 요즘 제가 가장 어렵고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간디학교에 들어오면서 보낸 지난 3년 동안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았고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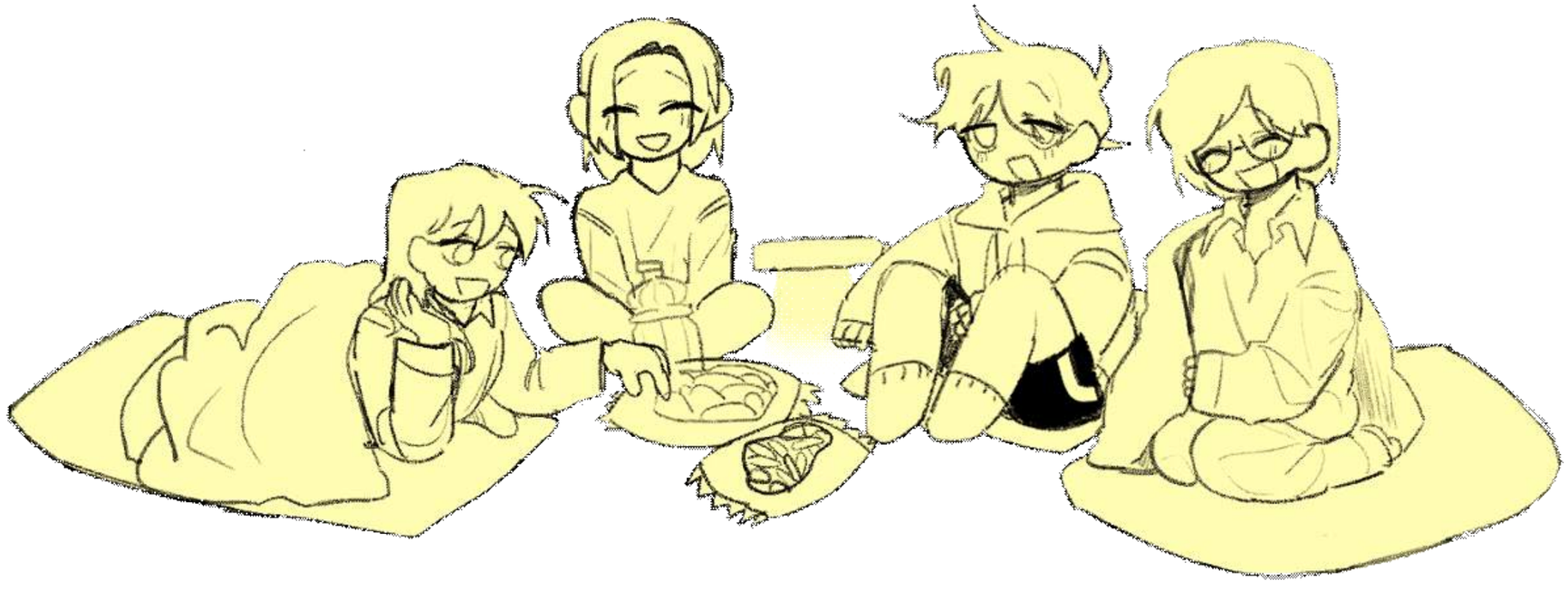


간디학교에서 가장 긴장되고 떨렸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발표할 때 가장 긴장돼요. 그래서 논문 계획서 발표나 중간발표를 할 때 아주 많이 긴장했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보면 바로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도 발표는 해야 되니까 정신 붙잡고 하는데 버벅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무 생각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1학년 때 막 학교에 입학한 순간 같은 거요. 같은 학년 애들이나 선생님만 보다가 선배들이랑 처음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긴장되지 않나요? 저도 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 됐던 때에는 선배들을 대하는게 긴장되고 그랬답니다. 금방 친해져서 반말도 하고 그랬지만요.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면 절로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상태니 더 조심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저희 간디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 한다면
뭐가 떠오르나요?



간담회는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일 것 같아요.
여기서 과자 봉지를 동그랗게 오리는 법이 학년 대대로 전수 됩니다.

급식으로 맛있는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밥 먹을 시간이 무척 기다려지거든요. 식당에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줄은 엄청 긴데 식판을 들고 친구나 선생님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기다리기도 해요.
음식을 다 받고 친구들이랑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모두 다 먹을 때까지 같이 자리에 남아 이어지는 수다도 즐거워요. 저는 애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것도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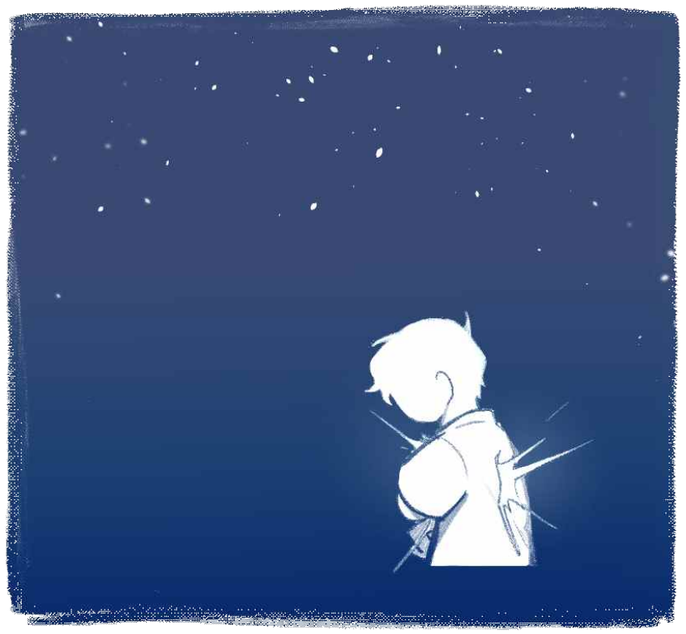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졸리고 몸이 피곤할 때 저는 그날의 시간표를 확인하곤 합니다. 도서관에서 한숨 자두려고 말이죠.
도서관 소파에서 느낀 포근함과 편안함은 아주 오랫동안 저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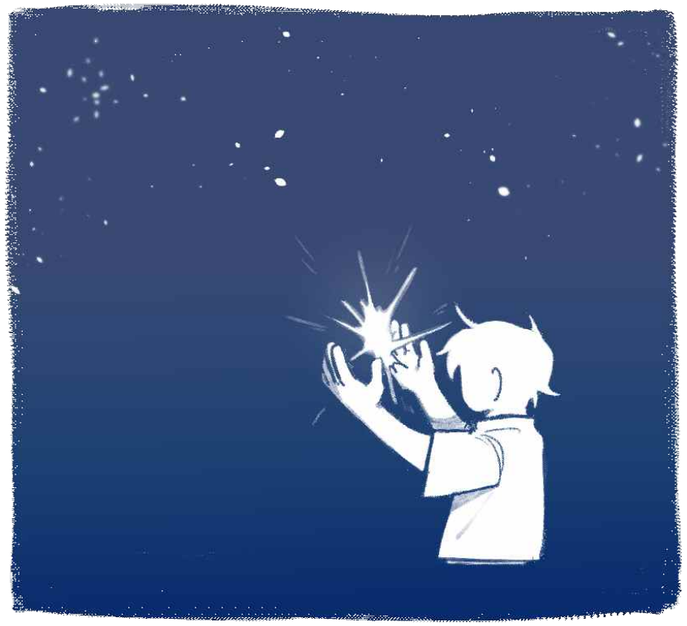
무거운 마음이 몸 밖으로 새어 나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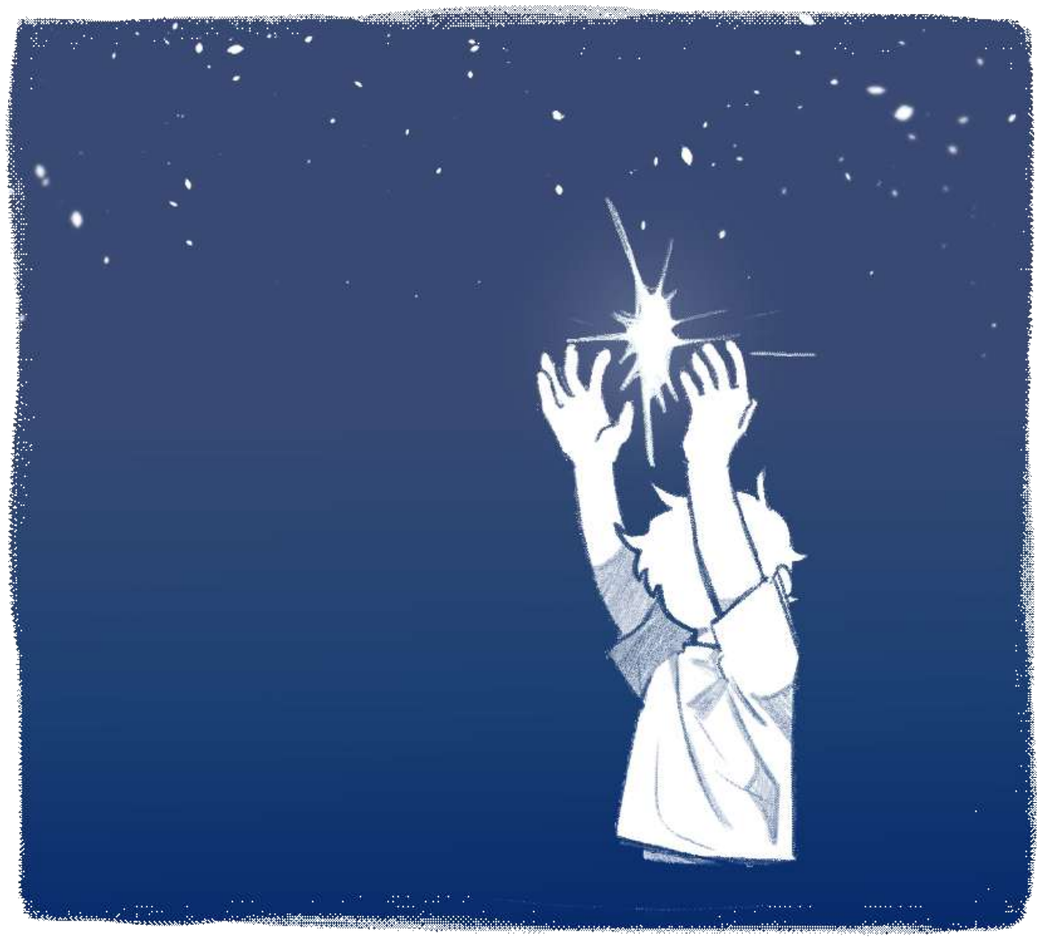
<한끼대접>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반이 맡아서 간디 구성원 전체의 점심을 준비하는 <한끼대접>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서 울곤 했거든요. <한끼대접>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건 아니지만, 그 즈음이면 해야 할 일정이 많고 피곤한게 쌓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감정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하고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얽힌 것이고 좌절감도 그중 하나의 감정이니까요.

1학년 때도 <한끼대접> 때문에 울긴 했지만 2학년 때 보다 좀 나았던 이유는 그땐 나랑 가장 친했던 언니랑 같은 반이라서 덜 힘들었어요. 언니에게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지만 친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됐거든요. 그에 비해 2학년 때에는 위로를 받을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에는 '정말 이 학교에 오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심란하기도 했고 친구들과도 별로 어울려 다니지도 않아 걱정이 많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겉보기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나 봐요. <한끼대접>을 계기로 억누르던 감정들이 터져 나와 도저히 울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엄마가 절실히 보고 싶었던 느낌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래서 한 번 시원하게 풀고 나니 금방 후련해져서 괜찮아졌었어요.

뭐라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낀 순간이 이 때가 아닐였을까 싶어요. 다시 이런 순간이 온다면 여전히 극복하거나 견뎌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러한 감정은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다가 결국 터져버린 것이든 언제나 잘 조절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든 간에 몸과 말로 표현해야만 갈증은 해소되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

몸은 피곤하고 정신은 우울해서 힘든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면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곤 합니다. 핸드폰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나면 참고 있었던 눈물들을 주체할 수가 없고 힘들고 서러웠던 걸 엄마한테 말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전 남들에게 슬프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엄마 앞에선 솔직해져요 (엄마가 제 기분을 잘 알아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제 말 몇 마디만 듣고 나서 기분이 안 좋으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거의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인 만큼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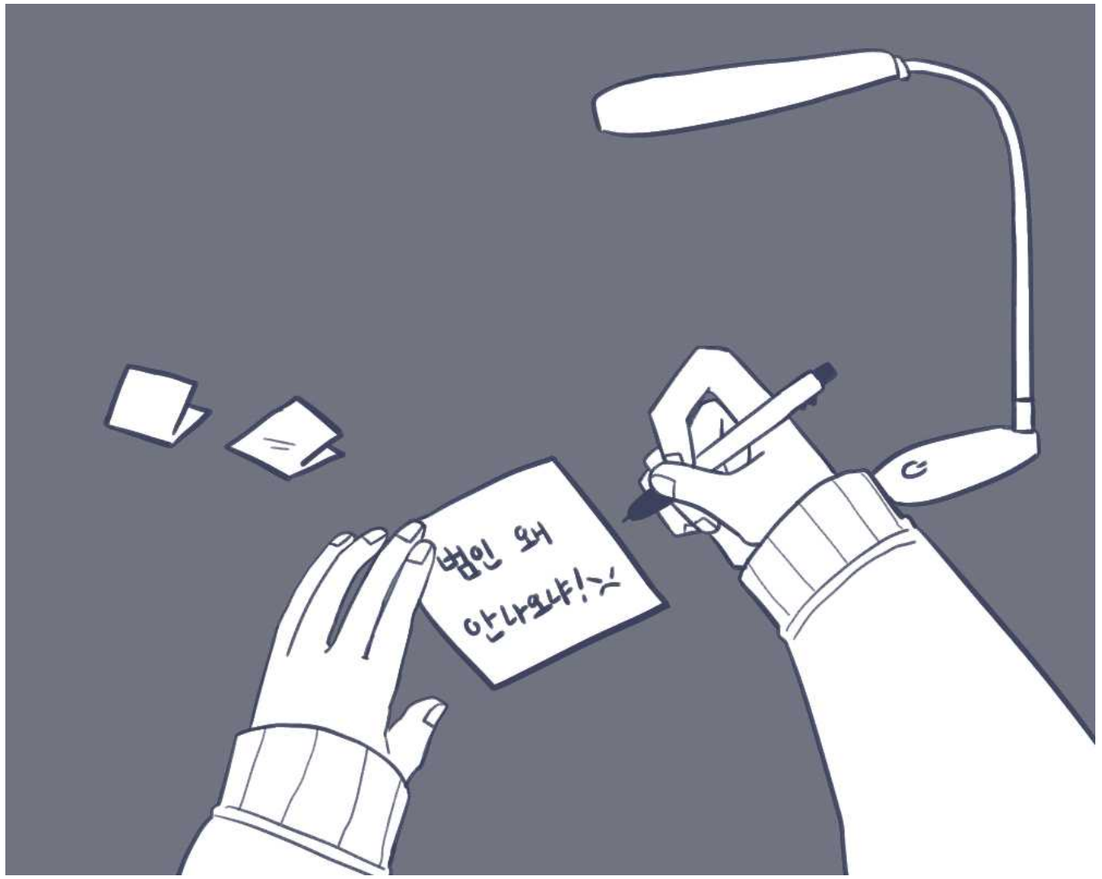
예전에 2학년 시절에 너무 힘들고 되는 게 없어서 울적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분 동안 핸드폰을 붙잡고 울다가 겨우 그쳤던 게 기억나네요.

꼭 힘들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더 보고 싶고 집이 그립기도 하지만 마음은 편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신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후련하실 거에요.

더 이상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증오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1학기에 논문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그때 특정 사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유독 스탑회의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답만 있었어요. 스탑회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물론 저도 스탑회의를 할 때마다 많이 화가 납니다. 피곤하고 할 일도 많은데 범인은 잘 나오지 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스탑회의도 꽤 많았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매년 스탑회의는 한 번 이상은 꼭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설문지에선 대부분 스탑회의를 하게 만든 범인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힘들고 화난다고 했는데 말이죠. 범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설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스탑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다들 엄청 화내고 싫어하는데 양심이 있다면 스탑회의를 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스탑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많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더 범인에 대한 마음속의 분노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간디인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노 중에선 이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저는 부디 더 이상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증오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 친구

외로움이란 감정은 저한테 중요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외로움이란 감정은 제 인생에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1, 2학년 때에는 친구들과 있지 않고 거의 혼자 다녔어요.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제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이런 외로움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거든요.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좋았던 점 들을 말해보자면, 기숙사를 올라갈 때 혼자 걸어 올라가면 의외로 많은 걸 볼 수 있었네요. 나무와 풀이 계절별로 미세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 모습은 저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어요. 전 기숙사를 올라가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지면 잠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해요. 혼자이기에 별이 보이는 늦은 시간이라면 고개는 하늘을 향하고 걸어갈 정도죠.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잠깐 멈췄다 갈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고요. 가끔씩 자신을 돌아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로움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했었는걸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혼자일 수는 없어요. 저도 줄곧 외롭게 살다가 이제 사람들 무리 속에 끼여 살기 시작했는걸요. 외로움은 온전히 나를 들여다 보게하는, 잠깐씩은 필요한 휴식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외롭게 지내라가 아니라 평소엔 친구들과 함께해도 힘들 때는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였어요.

나만의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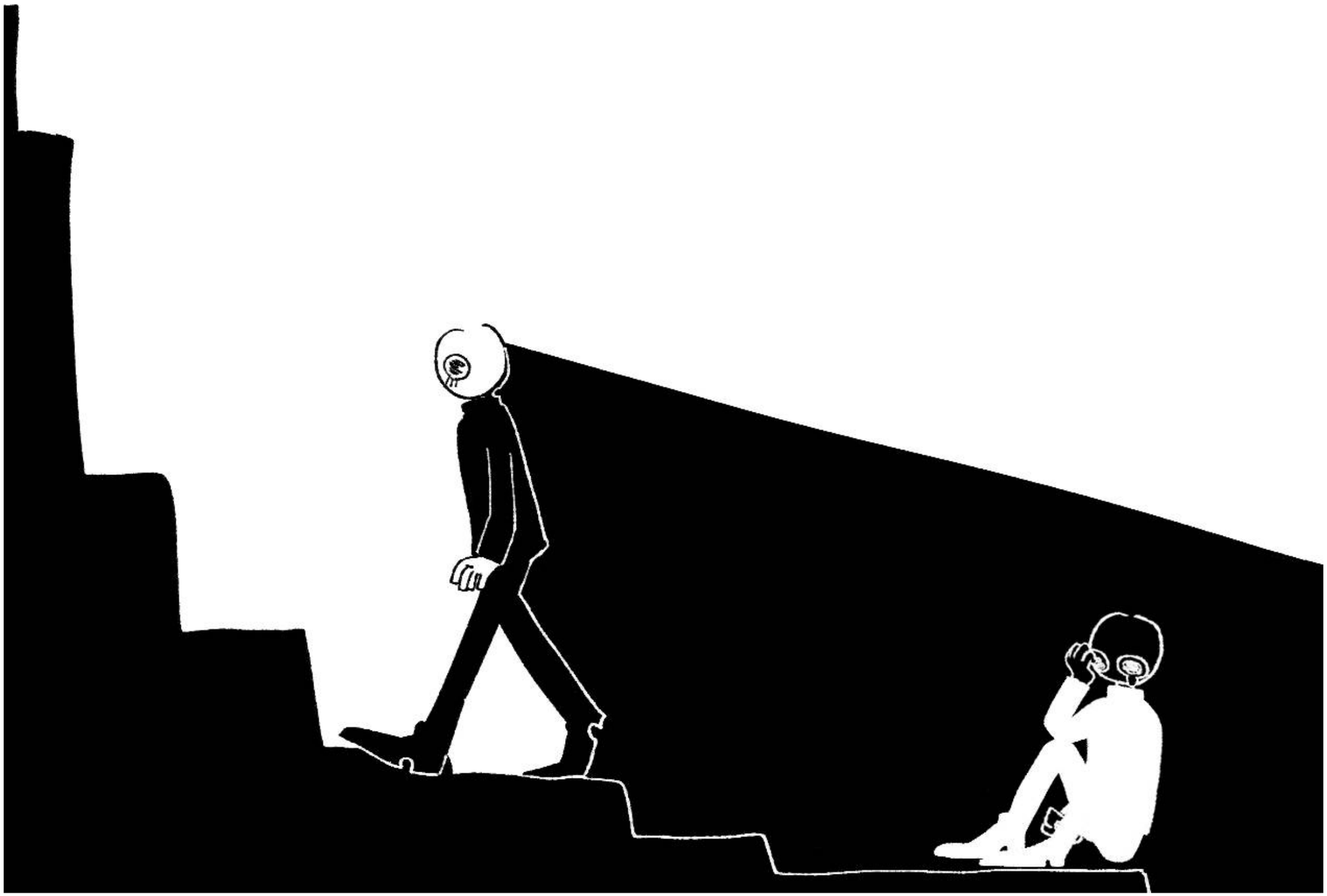
친구 관계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올해에는 같은 학년 애들과 매우 친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3학년 이전에는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어색한 사이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를 무언가에 비유하자면 '꽃' 같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긴 것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식물은 각자의 관리법이 있고 그걸 어기면 금방 죽거든요. 친구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정은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금방 죽는 꽃처럼 가녀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뻐 보이면서 자신과 잘 맞는 꽃을 더 애정을 갖고 잘 키우려고 하거든요. 친구라는 것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니 우정이라는 것은 정말 꽃과도 닮은 것 같습니다.

.

사실 친구를 사귈 때 취향이나 성격이 잘 맞으면 금방 친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공감대가 있어야 거의 초면인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눌만한 계기가 되곤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괜히 말 걸기도 어색하고 뭐라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초면에 바로 친근하게 대하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 상대방도 나와 같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것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1, 2학년 땐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색하다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분명 어색함을 이기고 조금 더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이였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학년 때엔 친구 관계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해도 그제서야 다가가기가 눈치가 보여서 친해질 계기가 생겨도 별로 말을 걸지 못했던게 기억나네요. 주변에서도 걱정과 잔소리를 하니 스트레스를 꽤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올해는 무빙 때문인지는 몰라도 같은 학년 애들과는 더 이상 서먹하지 않게 됐다는 거네요. 친구가 생기면서 이러한 관계에서도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고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친구관계를 만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 글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소속감에 안정을 느끼고 무리에 속해있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친구 무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안쓰러운 기 분이 듭니다. 만약 내가 친구 관계에 신경을 쓰는 성격이었더라면 내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거든요.

에필로그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쓰면서 많은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분명 저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 믿어요. 물론 이 책을 만드는 도중에도 너무 힘들고 슬퍼서 울었던 적도 많았어요. 학교에서 느낀 감정을 주제로 한 만큼 학교에서의 삶을 돌아봐야 했는데 학교에서 3년이나 보낸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좌절감도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꾸중도 많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었죠. 이렇게 힘들고 뜻대로 잘 안되다 보니 자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답니다. 집에 갔을 때 자퇴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한 적이 있는데 삶에서 성장은 계단의 형태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힘들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다 보면 어느 날 훌쩍 성장하는 날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성장하기 위한 계단 하나를 넘으려는 과정일 뿐이라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자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만큼 논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부모님의 그 말은 너무 힘이 됐었어요. 아직 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할 수는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제게 논문을 포기하지 않을 중요한 말이 되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어요.